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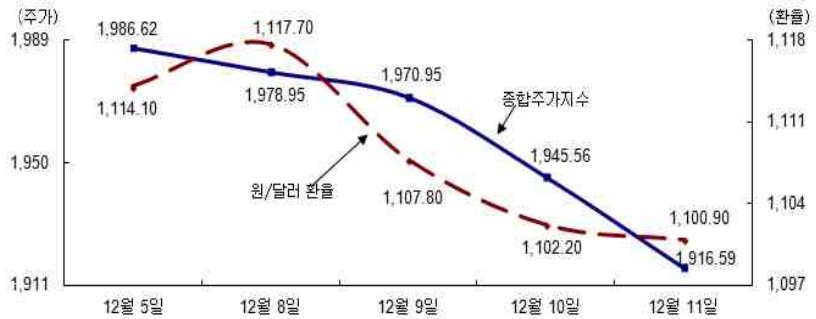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 ① 준(準) G1호의 출항
-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 (Japanisation)
- ⑤ 신흥시장의 저속주행
-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5~12.1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주 원 수석연구위원 외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2015년에는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① 준(準) G1 호의 출항

2015년에는 과거 세 번 G1 시대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준 G1 호의 출항으로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가 내수나 미국 이외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 경제 펀더멘털의 우위로 글로벌 자금 이동의 확대와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 가능성 상승이 예상된다.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Eurasian Union을 통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 심화와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 금융 불안 고조 등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Eurasian Union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지속으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및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절하 및 외채 상환 압력 가중에 따른 금융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글로벌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 사이클 상 불황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2015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을 제외한 EU와 일본 등 선진국 내수 부진의 지속으로 투자 수요 확대가 어렵고 그 동안 글로벌 투자를 리드하였던 IT 부문의 성장세 약화 및 이를 대체할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신흥국 역시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 여력이 미비하다.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Japanisation)

유로존 내 집중된 의사결정시스템의 부재,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 지연 등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하여 유럽을 장기불황으로 몰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이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지면 고실업 고착화, 국가부채 재상승, 금융부실 확대 등으로 위기가 반복될 수 있고 이는 단일경제의 결속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⑤ 신흥시장의 저속주행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신흥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들은 경제 구조조정 지연으로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유로,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의 성장세 부진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며 신흥국에 유입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창업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창업가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창업가의 시대에는 첫째, 청년들의 도전 활성화로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능가할 전망이다. 둘째, 정부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가의 길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아이디어 → 자금조달 → 제조 → 마케팅 등 창업을 통한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IT 기술이나 3D 프린팅 등 첨단 제조 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상품자산의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디플레가 우려된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부동산의 버블 붕괴가 올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등의 수요 부진, 달러 강세 등의 요인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원유 등 전통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ICT 제조업의 시장 주도력이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자로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 수요자로서의 인도 시장 부상 등 친디아가 ICT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인 ICT 제조업 시장이 2015년 성장세를 회복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세계 ICT 시장의 주요 공급 축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인도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을 대체할 신규 시장으로 주목된다.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군사용으로 제한되었던 드론의 활용 범위가 민간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드론 상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전망이다. 통신 중계, 항공 촬영, 교통 관제, 물건 배송 등의 영역에서 상업용 드론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항공교통체계 개편, 기술경쟁 심화,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에볼라 등 세계적으로 고위험군 질병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보 공유 및 선제적인 질병 차단 체계 마련 등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병경제학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노력 활성화, 의약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질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전망된다.

1. 개 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5년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① 준(準) G1 호의 출항

- 2015년에는 과거 세 번 G1 시대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준(準) G1 시대에는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 강화, 주요국 간 경기 디커플링, 글로벌 자금 이동 확대와 강(強)달러 가능성 상승 등이 전망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 ‘강한 러시아’로 부상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 제기
- 2015년 경제통합체인 Eurasian Union 창설을 통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 심화와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 금융 불안 고조 등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 글로벌 투자는 주글라(Juglar) 사이클 중기경기순환상 금융위기 이후 불황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15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
- 선진국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 수요 축소, IT 이후 신성장 산업의 부재, 신흥국 투자 부진 등이 글로벌 투자 침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 (Japanisation)

- 위기 이후 드러난 유로존 의사결정시스템의 경직성과 미흡한 정책 대응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하여 유럽을 장기불황으로 몰고 갈 것임
- 유럽이 장기불황에 빠지면 고실업 고착화, 국가부채 재상승, 금융부실 확대 등으로 위기가 반복되고 이는 단일경제의 결속을 약화시킬 것임

⑤ 신흥시장의 저속주행

-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신흥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경제 성장세의 하락 원인은 내수 경기 둔화, 주요국 수입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글로벌 유동성 이탈 가능성 등이 전망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구현을 위한 창업 활동이 활성화
- 창업가의 시대에는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능가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창업이 증가할 전망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 주요 상품자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
- 글로벌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 주요 원자재가 하락세 지속, 특히 전통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 최근 ICT 산업의 부진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무게 중심이 친디아(Chindia=중국+인도)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예상

- ICT 제조업의 시장 주도력이 회복되는 가운데(Air to Solid), 공급자로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Air to China), 수요자로서의 인도 시장 부상(Air to India) 등 친디아가 ICT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 2015년 드론 해금(解禁)으로 민간 드론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상업용 드론 시장이 본격적 성장할 전망
- 상업용 드론의 확산에 따라 항공교통체계 개편, 기술경쟁 심화,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 고위험군 질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
- 질병경제학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노력 활성화, 의약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질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전망

<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 >

2015 글로벌 트렌드
① 준(準) G1호의 출항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 (Japanisation)
⑤ 신흥시장의 저속주행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2.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준(準) G1호의 출항

○ (의미) 2015년에는 과거 세 번 G1 시대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최근 선진국들의 불황이 지속되고 G2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성장력이 하락함에 따라,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중심의 G1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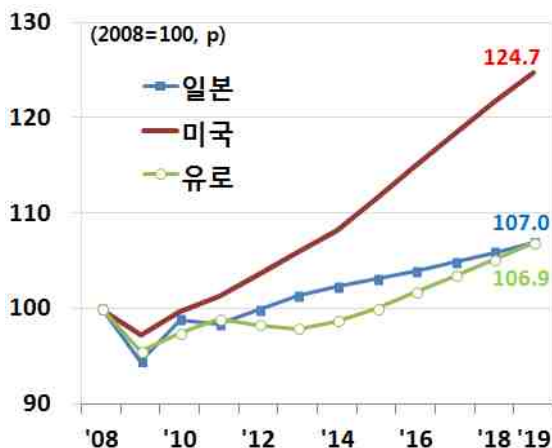
· 선진국 중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G2 시대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 1970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되었던 황금시대(7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 시대(80년대 중반), IT 붐 시대(2000년대 초반)의 세 번의 G1 시대에 이어 네 번째의 G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단, 대규모 개방 경제인 중국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미국 경제가 독주하는 G1 시대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는 준(準) G1 시대가 예상

· IMF는 2015년 이후 미국GDP/선진국GDP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GDP/세계GDP 비중은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일본, 유로존 실질GDP 지수 >



자료 : IMF.
주 : 2014년 이후는 추정치.

< 미국의 GDP 비중 >



자료 : IMF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추정.
주 : 2014년 이후는 추정치.

- (내용) 준(準)G1 시대에는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 강화, 주요국 간 경기 디커플링, 글로벌 자금 이동 확대와 강(強)달러 가능성 상승 등이 전망
 -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 강화: 미국 경제의 경기 선도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실물 경제 부문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의 수입 수요 수준이 교역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 부문에서는 미국 금융 시장의 방향성에 다른 금융 시장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간 경기 디커플링: 對美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상황이 내수나 미국 이외 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NAFTA, MERCOSUR 등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유로존, 동유럽, 러시아, CIS 등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 부진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자금 이동 확대와 강(強)달러 가능성 상승: 미 경제 펀더멘틀의 우위로 글로벌 자금 이동의 확대와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 가능성이 상승
 - 미 경제 펀더멘틀의 우위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철수하면서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슈퍼 달러(super dollar)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존재
- (시사점) 미국 중심의 G1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별 차별화된 교역 및 투자 전략 마련, 금융시장 변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

경제연구본부 주 원 수석연구위원(02-2072-6235)

②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 (의미) '강한 러시아'로 부상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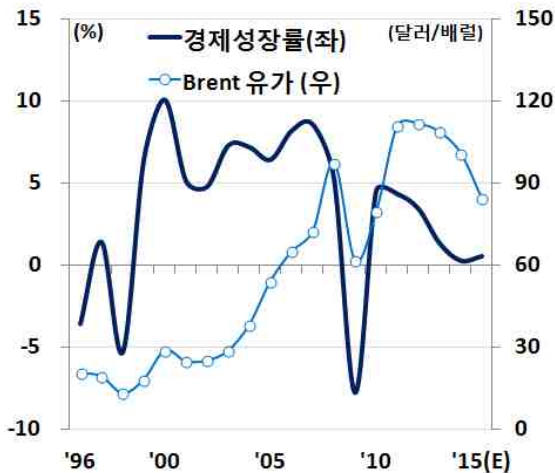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재건의 기치 아래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경제공동체인 Eurasia Union 창설 등을 추진
- 서방의 제재 지속 및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 금융 시장 및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추락할 가능성

○ (내용) 2015년 경제통합체인 Eurasian Union 창설을 통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 심화와 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 금융 불안 고조 등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제국의 부활 시도 : 2015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경제통합체인 Eurasian Union을 창립 추진
 - Eurasian Union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속으로 통합 이후 자본주의로 개혁한 구소련의 축소된 부활이 될 것으로 예상
 -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EU에 뒤지고는 있으나, 국토면적과 주요 자원 생산량에서 EU나 미국에 앞서거나 필적하는 수준임
- 국제적 고립 심화 :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지속으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
 -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 등으로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반러 움직임이 강화되는 등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 상황
 - 향후 러시아가 가스공급 중단, 군사 도발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일 경우 제재 강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고립 심화 우려

- **유가 하락 충격** : 원유, 가스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실물 경제 악화가 지속
 - 60% 이상을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수출 악화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지속
 - 또한 루블화 가치 절하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실질임금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
- **금융 불안 심화** : 지정학적 리스크 및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절하 및 외채상환 압력 가중에 따른 금융 불안이 지속될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단기 외채 급증 등 금융 불안이 심화될 전망

<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 CERA, EIA, PIRA, 한국석유공사.

< 러시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추이 >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 (시사점) 러시아를 둘러싼 외교지형 변화에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모라토리엄 가능성 등 러시아 금융 불안 확산에도 대비할 필요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02-2072-6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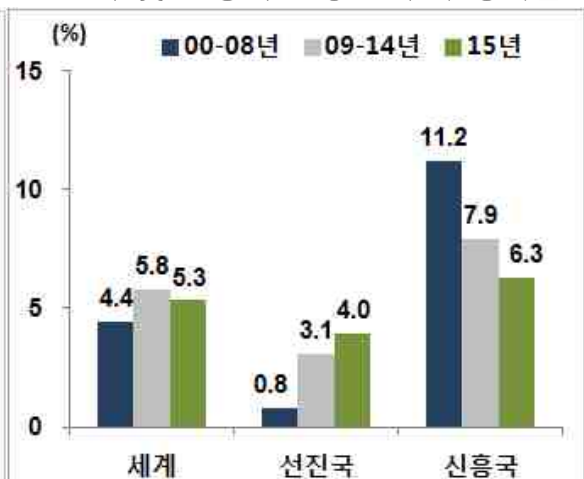
③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 빙하기의 도래

- (의미) 글로벌 투자는 주글라 사이클 상 금융위기 이후 불황 국면에 진입 하였으며 2015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투자의 주글라 사이클은 설비투자 순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장기 사이클을 의미
 - 주글라 사이클이란 약 10년 주기의 중장기 경기 사이클을 의미하며, 글로벌 투자의 주글라 사이클은 1970년 이후 약 8.5년 주기로 발생
- 글로벌 투자는 1990년 중반, 2000년대 중반 두 번의 호황기를 거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침체 국면이 지속
 - 1990년 이후 글로벌 투자의 호황기는 주글라 사이클 상 글로벌 투자는 주글라 사이클 상 1990년대 중반 신경제시대, 2000년대 중반 신골디락스 기간
 - 글로벌 투자의 주글라 사이클은 2008년 금융위기로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투자의 주글라 사이클 >



< 선진국 및 신흥국 연평균 투자 증가율 >



자료 : UN 및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 투자 사이클은 BP필터를 이용해 추정
 2) 투자 사이클이 100 이상시 호황, 100 미만이 불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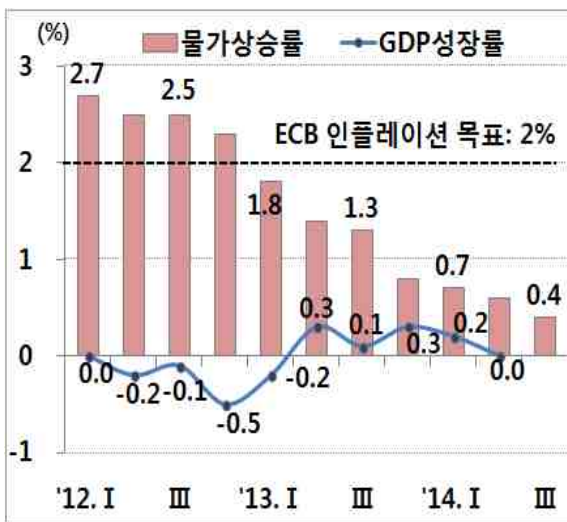
- (내용) 선진국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 수요 축소, IT 이후 신성장 산업의 부재, 신흥국 투자 부진 등이 글로벌 투자 침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
 - 선진국 내수 부진: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등 선진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 수요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 최근 IMF에 따르면 EU는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 문제, 일본은 소비세 인상의 여파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 EU 및 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는 곧 신흥국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전망
 - 신성장 산업의 부재: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던 IT 부문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IT를 대체할 뚜렷한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상황
 - IT 부문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반도체 공급 과잉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며 투자 수요가 감소
 - 더욱이 IT 부문을 대체해 글로벌 투자를 리드할 수 있는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신흥국 투자 부진: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투자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수출 둔화 등으로 신흥국 투자가 크게 둔화될 전망
 -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왔던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
- (시사점) 글로벌 투자 침체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경제연구본부 조규림 선임연구원(02-2072-6240)

④ 유럽의 재패나이제이션 (Japan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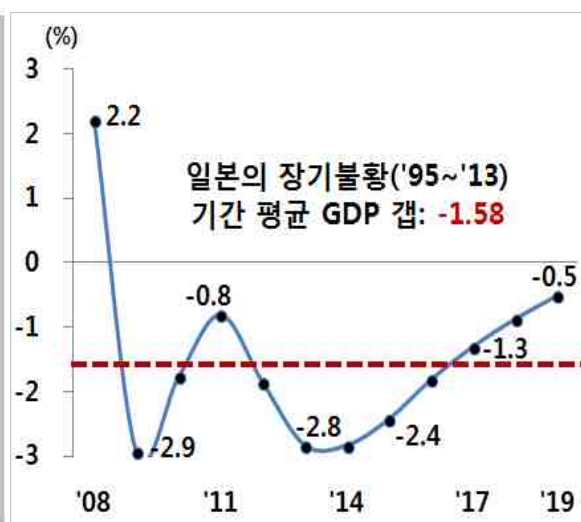
- (의미) 위기 이후 드러난 유로존 의사결정시스템의 경직성과 미흡한 정책 대응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하여 유럽을 장기불황으로 몰고 갈 것임
- 유로존 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2014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재차 하락하고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4년 3분기 연속 하락하였고 물가상승률 역시 2013년 4/4분기 이후 1%대를 하회하고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
- 그러나 유로존 내 집중된 의사결정시스템 부재로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음
 - 유로존의 GDP 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9% 하락한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만큼 침체됨을 의미
 - 특히, 일본이 1995년부터 2013년 장기불황 기간 GDP갭 평균이 -1.5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5년에도 유로존의 경기 회복력은 매우 약한 상황임

<유로존 GDP와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Eurostat.
주 : GDP성장률은 전 대비, 물가는 전 대비 연율임

<유로존의 GDP 갭 추이>



자료 : IMF.
주 : 1) GDP갭(실질GDP-잠재GDP)/잠재GDP.
2) 2014년 이후는 IMF 추정치임.

- (내용) 유럽이 장기불황에 빠지면 고실업 고착화, 국가부채 재상승, 금융부실 확대 등으로 위기가 반복되고 이는 단일경제 결속을 약화시킬 우려
 - 고실업 고착화: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력 저하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 소비 부진, 세수 감소 및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연결
 - 유로존 실업률은 2008년 7.5%에서 2013년 11.9%로 상승했고 2014년도 9월 까지 11.6%로 높음. 반면, 일본은 장기불황 기간 실업률이 4.3%에 불과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낮아 이 유럽의 고실업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 실업률 개선이 지연되면 소비 심리 저하, 정부의 세입 규모 축소 등으로 공공/민간 부문 모두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재차 고용 부진으로 연결
 - 국가부채 재상승으로 부도위험 재발: 내수 부진과 고실업률 지속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하면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이 된 국가부채가 확대되게 됨
 - 유로존의 국가부채는 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79.5조 유로에서 2014년 2/4분기 기준 92.6조 유로로 GDP 대비 92.7%로 상승
 - 고실업 등이 지속되면 정부 세수입 부족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임. 일본도 장기불황 기간 GDP 대비 국가부채가 1995년 95.1%에서 2013년 243.2%로 상승
 - 금융위기 가능성 등이 단일경제의 결속을 약화: ECB의 통화공급 확대에도 시중자금 경색 등으로 금융부실 확대가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존
 - 유로존 내 기업·가계 대한 대출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면서 금융 부실이 재차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유로존 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지 못한다면 단일 감독기구, 청산소 등 금융동맹의 합의안들도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시사점) 유럽의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어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 유럽 경제 모니터링 강화 및 유럽계 투자자금 유출 등에 대비가 필요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⑤ 신흥시장의 저속주행

○ (의미)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신흥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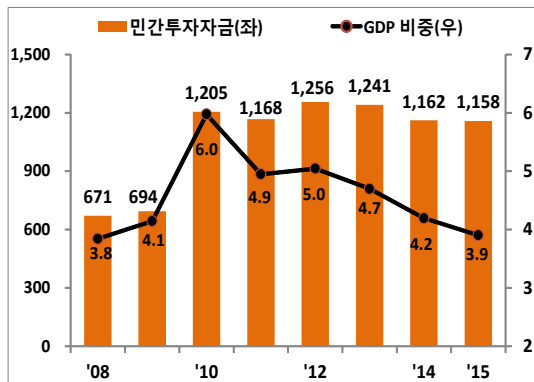
- 신흥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로 세계경제를 견인하였으나 향후 경제 성장 속도가 점차 감속될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은 2010~14년 성장률 평균이 1.8%에서 2015~19년 2.4%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신흥국은 2010~14년 5.6%에서 2015~19년 5.2%로 낮아질 전망

○ (내용) 신흥국 경제 성장세의 하락 원인은 내수 경기 둔화, 주요국 수입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글로벌 유동성 이탈 가능성 등이 전망

- 내수 경기 둔화 : 신흥국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내수 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투자주도형 성장과 사회안전망 취약에 따른 국민들의 저축 선호 등으로 소비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함
 - 자원수출국들은 자원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내수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 주요국 수입수요 감소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부진 지속과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생산기지 유턴 등으로 수입수요가 감소
 - 신흥국들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로지역은 경기회복세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성장률이 차츰 둔화
 - 신흥국들은 최근 선진국과의 임금격차가 축소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약화된 반면 선진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노력, 비즈니스 환경 우위 등으로 본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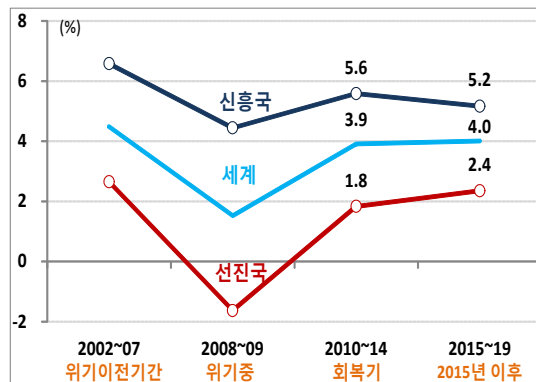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수출이 둔화될 우려
 - 현재 6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는 향후에도 원유 수급 측면, 국제금융시장 자금 흐름, 달러화 향방 등을 고려해 볼 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신흥국들은 대체로 자원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신흥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유동성 이탈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며 신흥국에 유입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점차 가시화 되며 금리인상 등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짐
 -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신흥국에 유입된 유동성이 대거 이탈할 우려

< 신흥국 투자자금 및 GDP 대비 비중 >



자료 : FRB, IFS.
주 : 2014년 이후는 추정치.

< 선진국, 신흥국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 >



자료 : IMF.
주 : 2014년 이후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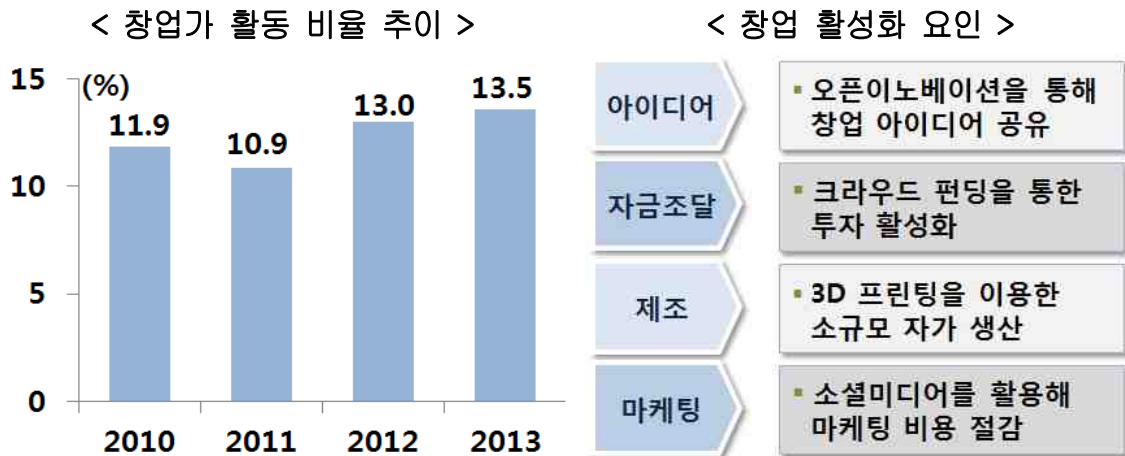
- (시사점) 신흥국 성장률 둔화가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국내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등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02-2072-6211)

⑥ 창업가 시대(The Age of Entrepreneur)의 시작

- (의미)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구현을 위한 창업 활동이 활성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
 - 18~64세 인구에서 신규 창업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9%에서 2013년 13.5% 수준으로 증가
 - 또한 기술의 발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신규 창업 과정이 쉽고 단순해지면서 '창업가의 시대'가 본격화
- (내용) 창업가의 시대에는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능가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창업이 증가할 전망
 - **혁신형 창업의 확대**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창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혁신형 창업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성공 신화를 꿈꾸며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 활동에 도전
 - 이를 위해 초기 창업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못지않게 실패한 창업가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다만 중장년층은 실업 이후, 혹은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을 위해 자영업 등 위험이 적은 생계형 창업을 선호
 - **창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 :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가의 길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벤처캐피탈, 연구기관, 우수 인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창업 생태계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애플, 구글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창업가를 뒷받침해주는 양질의 창업지원 서비스 때문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업** : 아이디어 → 자금조달 → 제조 → 마케팅 등 창업을 통한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IT 기술이나 첨단 제조 기술의 영향력이 증대
 -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직 내외의 인력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R&D 비용 절감
 -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대출 등 전통적인 자본조달 방식 이외에 일반 대중들이 소규모 자본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유행
 -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창업가 개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자가 생산 가능
 -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창업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손쉽게 홍보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주 : 1) 18~64세 인구에서 초기 창업가 비율.
 2) 연도별 조사대상 국가들의 단순평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 정부 주도로 각국의 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 기업의 가치사슬과 IT 플랫폼의 연계성 강화 노력이 필요

산업전략본부 안중기 선임연구원(02-2072-6242)

⑦ 상품자산 디플레의 전개

○ (의미) 주요 상품자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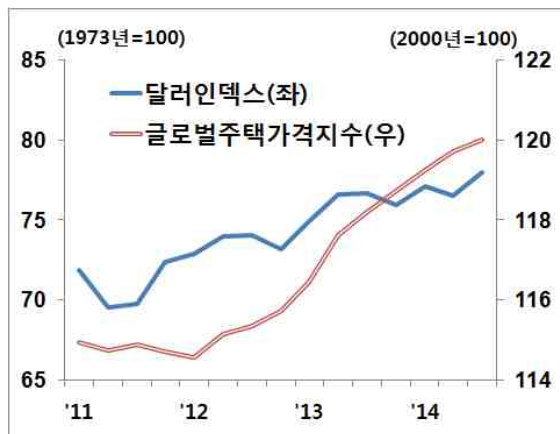
- 달러화 강세,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 상품자산 가격의 인플레이(버블)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상

- 달러인덱스¹⁾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2~3년간 글로벌 주택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상품시장은 장기간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 사이클(super cycle)²⁾이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 글로벌 상품시장은 이미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 하락세

- 상품자산 가격의 하락세 지속시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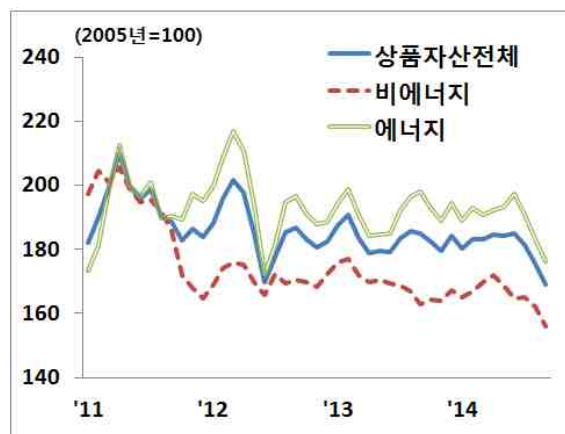
-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자산 디플레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 달러인덱스 및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



자료 : FRB, IMF.
주 : 달러인덱스 상승은 달러화 강세를 의미.

< 상품가격지수 >



자료 : IMF.

1) 미국 달러의 가치를 주요 6개국 통화 가치와 비교해 놓은 지표(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을 경제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달러인덱스 상승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의미.
2) 1980년대 이후 총 네 번의 상품시장 슈퍼사이클이 감지. 마지막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로 동 기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상품가격은 60~500% 상승.

○ (내용) 글로벌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 주요 원자재가 하락세 지속, 특히 전통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

- **글로벌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 각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직면, 향후 대출 규제 등 정책 강화시 버블 붕괴로 급격한 디플레 가능성
 -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 가격이 역사적 평균치 이상을 지속, 이와 함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주택가격 역시 큰 폭의 상승세³⁾
 - 과거 금융위기 대부분이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 과정에서 촉발됐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글로벌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
- **주요 원자재가 하락세 지속:**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등의 수요 부진, 본격화되고 있는 달러 강세 등의 요인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부추김
 - 원자재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에 의해 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반영
 - 주요 상품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낙폭이 컸던 금속, 철강, 곡물 등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상존
- **전통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확연:** 비전통에너지(세일가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원유 등 전통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
 -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는 북미 지역의 수출 확대, 중국의 개발 붐 등 전반적인 세일가스 생산량 증대가 큰 영향
 -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유가 하락 효과 상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감소, 달러화 강세로 인한 투기자금 이탈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

○ (시사점) 자산 디플레 속도 제어, 장기 경기 침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등에 정책 초점, 기업은 업종/규모를 고려한 선택적 영업 확대 전략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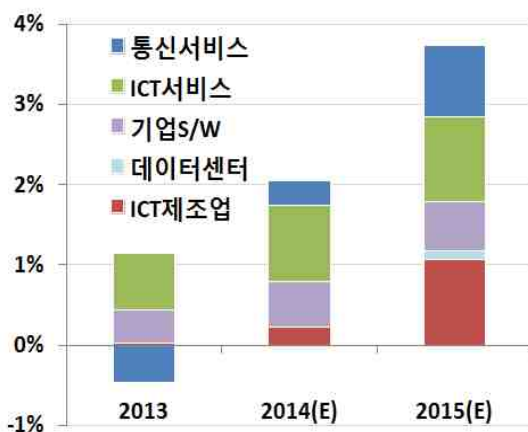
산업전략본부 백홍기 수석연구위원(02-2072-6228)

3) IMF의 글로벌주택가격지수는 최근 1년간 3.1% 상승. 조사 대상 51개국 중 33개국이 상승 추세를 지속.

⑧ ICT를 주도하는 친디아(Chindia)

- (의미) 최근 ICT 산업의 부진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무게 중심이 친디아(Chindia=중국+인도)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예상
- 최근 ICT 산업은 과거의 급속한 성장세가 둔화되며 세계 시장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2007년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기존 PC 환경 기반의 ICT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 시장조사기관 Gartner에 의하면 2012년 세계 ICT 지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한데 이어 2013년에는 0.7% 성장에 그치는 등 최근 성장세가 둔화
- 기존 부진한 성장세가 2015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무게 중심 이동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
 - Gartner는 2014년 세계 ICT 지출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부진했던 기존 성장 추세가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ICT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며 시장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 ICT 시장 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 Gartner.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 : Strategy Analyst.

- (내용) ICT 제조업의 시장 주도력이 회복되는 가운데(Air to Solid), 공급자로서의 중국의 위상 강화(Air to China), 수요자로서의 인도 시장 부상(Air to India) 등 친디아가 ICT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Air to Solid:**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인 ICT 제조업 시장이 2015년 성장세를 회복하며 전체 ICT 시장 확대를 견인
 - 2013~14년 ICT 시장 성장은 ICT서비스, 기업S/W 등 서비스 부문이 견인했으며 ICT 제조업은 선진 시장에서의 기기 보급률 상승, 경쟁 강화에 따른 제품 평균 가격 하락 등으로 각각 1.1%, 1.2%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임
 - 그러나 ICT 제조업은 2015년 5.8% 성장하며 부진을 회복하고 전체 ICT 시장을 견인할 전망
 - **Air to China:** 기존 ICT 시장의 주요 공급자였던 한국, 미국, 대만 업체 등을 대신해 중국 업체들이 세계 ICT 시장의 주요 공급 축으로 빠르게 부상
 -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에 의하면 2014년 2분기 한국 업체들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30.1%로 전년동기대비 -7.7%p 감소
 - 반면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5.9%p 확대된 17.3%를 기록했으며, 2014년 3분기에는 중국 업체 Xiaomi가 세계 3위 업체로 부상
 - **Air to India:**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을 대체할 신규 시장으로 주목
 - 세계 스마트폰은 보급형 중심으로 성장하고 주요 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IT업체들이 중국을 대신할 거대 신흥시장으로 인도에 집중
 - Strategy Analytics에 의하면 인도 시장은 2012년 세계 10대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입성한 후 2013년 3위에 이어 조만간 2위로 부상할 전망
- (시사점) IC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기 부문 영업 전략 강화,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신규 신흥 시장 공략 전략 수립 등이 요구

경제연구본부 백다미 선임연구원(02-2072-6239)

⑨ 상업용 드론 시장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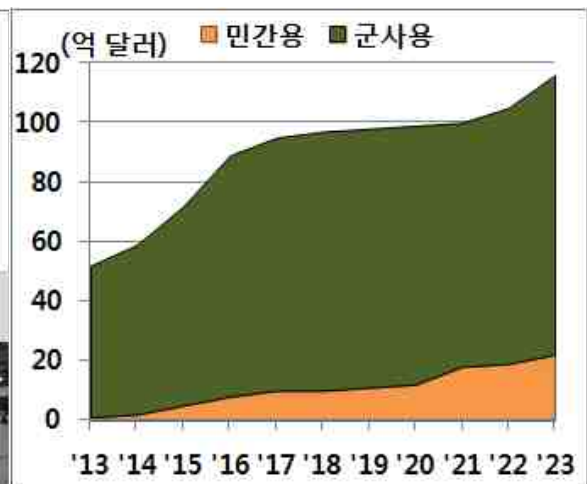
○ (의미) 2015년 드론 해금(解禁)으로 상업용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

-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용은 사실상 금지되어 왔지만, 2015년 미국에서 민간 드론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드론 상용화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
 - 美 연방항공국(FAA)은 2012년 '현대화 개혁 법안' 통과 후 2015년까지 가이드라인 제시 방침에 따라 현재 6개의 시범 지역을 설정하고 검증을 진행 중
- 군사용, 취미용 목적에 제한되었던 드론의 활용 범위가 상업용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
 - 드론 시스템은 비행체와 지상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비행체에 탑재된 임무장비에 따라 통신중계, 항공촬영, 교통관제, 물건배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
 - 민간용 드론 시장은 2015년 5억 달러에서 2023년 22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상업용 드론 시스템 개념도 >



< 세계 드론 시장 전망 >



자료 : BI Intelligence.

- (내용) 상업용 드론의 확산에 따라 항공교통체계 개편, 기술경쟁 심화,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 항공교통체계 개편: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 항공교통체계에 무인항공기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
 - 이에 따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국가 항공교통체계 내에 통합하기 위한 법규를 정비해나갈 것으로 예상
 - 기술 투자 증가: 글로벌 IT 기업, 항공기 제조업체 등은 상업용 무인항공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 구글의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 인수, 페이스북의 '어센타' 인수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드론 관련 M&A 경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지금까지 군사용 드론을 생산해온 항공기 제조업체, 방산 업체들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상업용 드론 시장에 적극 진출
 - 안전성·보안성 강화: 충돌 및 추락에 따른 사고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에 의한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
 - 충돌감지 및 회피시스템, 주파수 분할 등 기술적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등 제도적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
 - 또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공중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 해킹에 의한 드론 탈취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
- (시사점) 글로벌 기업의 상업용 드론 시장 선점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법·제도 정비, 산업 육성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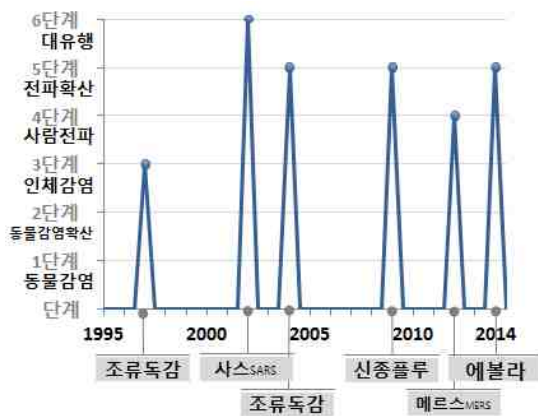
산업전략본부 장우석 연구위원(02-2072-6237)

⑩ 질병경제학(Economics of Disease)의 부각

○ (의미) 고위험군 질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

- 고위험군 질병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산
 -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고위험군 질병의 발생이 3~4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인명 피해,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
 -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고위험군 질병으로는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병한 에볼라의 경우 2014년 10월 기준 오천여명이 사망했으며 향후 16~326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
- 이에 질병 정보 공유 및 조기 질병 차단 체계 마련 등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
 - 에볼라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질병 차단 조치, 질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 장치 부재 등이 질병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

< 세계 고위험군 질병 발생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

	피해 내용(명)		피해액 (억달러)
	감염	사망	
사스 (2003)	8,422	912	500
조류독감 (2004)	421	257	20,000
신종플루 (2009)	1,516	30	3,600~ 40,000
메르스 (2012)	703	205	(-)
에볼라 (2014)	10,141	4,922	16~326

자료 : WHO, World Bank, Brookings Institution, Bio Economic Research Association.

- (내용) 질병경제학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노력 활성화, 의약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질병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전망
 - **글로벌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노력 활성화:** 효과적인 질병 차단·치료를 위한 국제 질병 대응 체계 마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인적 이동 및 교역을 통한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자 탐지 및 격리 지침 마련 등 출입국 국제 표준 제정이 예상
 -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질병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의약 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 차원에서의 의약 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질병 발생의 주기가 빈번해지고,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은 신약 개발 및 의약 경제성 개선을 위한 의약 부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질병 리스크 관리 강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질병 발병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유행성 질병의 발생은 이동 수단인 운수 중단,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항공·운수·관광산업 등에 영향
 - 질병 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인적자원 교육 및 방역 대책 마련으로 질병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질병경제학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질병 차단 대책 모니터링 강화, 질병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

산업전략본부 전해영 선임연구원(02-2072-624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ks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 4일	12월 1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23	2.16	-0.07%p
	엔/달러	85.86	98.51	105.04	119.78	118.65	-1.13¥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379	1.2411	0.003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900	17,596	-304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7,887	17,257	-63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16	2.13	-0.0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115.2	1,100.9	-14.3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86.6	1,916.6	-7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 4일	12월 1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66.73	59.91	-6.82\$
	Dubai	107.99	100.38	107.88	66.95	61.57	-5.38\$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53.70	246.02	-7.6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